

'90년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수급 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국의 총 석유생산은 '90년대 중반까지 약 70만b/d 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탐사·개발로 향후 2-3년이내에 많은 유전이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베트남, 濠洲,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증산가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석유수출을 목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어 주요 석유 수출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8.1%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계 석유생산이 1.2%증가에 그친데 반해 이 지역의 생산증가율이 높은 것은 신규탐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걸프사태로 인한 증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증가는 주로 濠洲, 中國,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泰國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베트남과 석유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개척을 단행한 호주의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국의 '90년도 석유생산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국의 석유생산

	석 유 생 산 (천b/d)			탐사·평가정		
	1989	1990	증가율(%)	1989	1990	증가율(%)
호주	492	575	16.9	161	175	8.7
브루나이	131	131	0.0	10	8	-20.0
中國	16	19	18.8	8	5	-37.5
인도네시아	1,408	1,460	3.7	108	124	14.8
말레이시아	584	647	10.8	21	36	71.4
뉴질랜드	38	38	0.0	9	8	-11.1
파푸아뉴기니	-	-	-	21	19	-9.5
필리핀	5	5	0.0	7	4	-42.9
泰國	42	44	4.8	19	18	-5.3
베트남	32	52	62.5	1	5	400.0
計	2,748	2,971	8.1	365	402	10.0

주 1) : 외국기업에 의한 석유생산임

(자료)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91. 3. 4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개발활동(탐사·평가정수)은 1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기 6개 증산국중에서 中國과 泰國를 제외한 탐사·평가정수는 17%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泰國과 中國의 개발활동이 감소한 것은 태국의 정치적 불안과 中國의 천안문사태 후유증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8년의 경제개혁조치 이후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베트남은 그동안 소련으로부터 원조형태로 공급받아온 석유제품의 도입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개발활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재 5.2만b/d에 이르고 있는 베트남의 석유생산은 연말까지 10만b/d이상, '95년까지는 12만b/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과 합작으로 '86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베트남 최초의 Bach ho(백호)유전은 자본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인 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설정이지만 자본문제가 해결되면 2-3배의 증산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트남의 석유산업 현황

유 전	생 산 량 (천b/d)		매 장 량 (백만배럴)	소 비 량 ('90 : 천b/d)	정 제 능 력 (1990)
	1989	1990			
Bach Ho	32	52	175 - 300	55 - 58	800b/d
Dai Hung	—	—	250 - 350		
Rong	—	—	75 - 125		
計	32	52	500 - 775	55 - 58	800b/d

〈자료〉Petroleum Economist, '91. 2

· 濠洲의 '90년도 석유생산은 북서대륙붕의 증산에 힘입어 '89년에 비해 8.3만b/d 증가했다. 북부 Timor 海의 신규개발과 북서대륙붕의 개발가속화로 '95년까지 10~15만b/d의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감소추세에 있는 남부 Bass해협을 증대시키고 한계유전의 개발을 위해 濠洲정부는 '90. 7월에 기존의 생산량기준에서 수익성기준으로 세제를 개정했다. 이러한 세제개정으로 인해 Bass해협의 생산은 '94년까지 6~9만b/d의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초에 생산을 시작한 베트남의 Dai Hung유전(초기 생산량 : 4천b/d)은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어서 연말까지 생산량은 5만b/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자본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Rong유전은 현재 英國의 Enterprise와 개발을 협의중에 있는데 투자가 결정되면 '90년대 중반까지는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2000년까지 30만b/d의 석유생산목표가 달성되면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가입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이공 함락이후 소련과의 합작으로 진행해온 석유개발이 자본부족에 직면하자 '88년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여 서방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다.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稅制조건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할 뿐만 아니라 美國의 경제제재조치로 美國 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까지 외국기업의 투자액은 총 14억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4.2억달러가 석유·가스부문에 투자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생산배분(Production - Sharing)계약을 통해 석유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90년도 외국기업의 석유개발 투자액은 '89년에 비해 23%가 증가한 18.6억달러로서 '80년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심해유전개발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작년 7월에 세제혜택기간을 연장시켜 주었다. 올 4월에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Dulang유전의 생산으로 석유생산은 '92년까지 7~8만b/d 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의 생산은 Conoco와 합작으로 개발중인 Natuna섬 근처의 유전에서 15만b/d의 저유황 경질유 생산을 비롯하여 '95년까지 약 25만b/d의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제조업, 수송, 금융업의 자율화조치에 따라 '90년도의 석유소비는 높은 증가율(14%)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추이는 '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증산분이 석유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증산분이 저유황 경질유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파푸아뉴기니의 석유생산은 '93년에 10.2만 b/d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그동안 소련으로부터 원조형태로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90년부터 급감함으로써 '91년도의 석유생산은 2배(10만b/d)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日本과 유럽기업들이 상·하류부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베트남전쟁이후 美國과의 적대관계 지속으로 美國기업의 진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75년이전까지 2개의 유전개발을 진행했던 Mobil은 투자재개를 美國정부와 베트남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美國 국무부는 국교정상화라는 조건을 표면적으로 내세

우고 있지만, 베트남정부가 강력하게 Mobil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고 베트남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조만간에 美國 기업의 진출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베트남은 주변국과의 국경분쟁으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남지나해 중부의 Spartly섬에 대한 개발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濠洲는 인도네시아와의 국경분쟁으로 그동안 수차례의 협상을 거듭한 Timor해의 개발을 위해 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하여 '92년초부터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발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의 증산량은 정제능력부족과 경제개발의 재원확보로 인하여 대부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출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베트남의 정제능력은 日本과 합작으로 운영하고 있는 800b/d에 불과한데 '90년까지 4천b/d로 증대될 계획이며 석유소비도 '90년대 중반까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5만b/d생산이 가능한 베트남의 Dai Hung 유전 증산분과 인도네시아의 증산분(15만b/d)은 저유황 경질유로 나타나고 있어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경질 석유제품 소비급증추이로 볼 때 그 활용가치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동향)

'90년 동남아시아의 석유소비 실적

	석 유 소 비 량		경 제 성 장 률
	수 요 (천b/d)	증가율 ('89/'90)	
日 本	3741.4	3.9%	4.9%
韓 國	865.0	25.9%	9.0%
인 도 네 시 아	542.9	14.0%	7.0%
대 만	485.4	1.0%	5.2%
태 국	371.5	21.0%	10.9%
말 레 이 시 아	241.0	7.0%	9.4%
필 리 핀	208.6	4.8%	3.1%
싱 가 포 르	160.5	7.0%	8.3%
計	6616.4	8.0%	5.8%

(자료)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91. 3. 11